

STARS!

김우빈, 신민아, 유아인

EXCLUSIVE!

DDP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 인터뷰

별에서 온 드레스
꿈꾸는 어른들을 위한 패션,
오트 쿠튀르

들었다 봤다
당신을 들썩이게 만드는
봄·여름 백&슈즈

**BLOOMING
SPRING**

꽃처럼 피어나는 얼굴,
봄 메이크업 코드

W Art Project

고상우, 김홍석, 난다, 박미나, 손종준,
오형근, 이정록, 정연두, 천경우,
최정화, 홍경택, 홍승혜
12명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더블유와
손잡고 제작한 그들의 완전한 신작

9th ANNIVERSARY!

더블유 창간 기념호 지면 위에 펼쳐지는 패션&뷰티 코드의 미술적 재해석!

MARCH 2014
더블유 한국판
통권 109호
6,500원
www.wkorea.com

ISSN 1739-5119



2014 S/S 뷰티 비주얼 북

더블유만의 시각으로 풀어본 14개 브랜드의 뷰티 트렌드



J U N G Y E O N D O O

〈W Korea〉 더블유와의 작업은 '내 사랑 지니' 시리즈를 뒤집는 발상 같기도 하다. '내 사랑 지니'가 사진으로 피사체의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프로젝트였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모델이 입고 있던 판타지, 즉 패션을 벗겨내는 쪽을 택했다. 정연두 사진이란 매체를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패션이다. 예술로서 사진을 찍는 나 같은 사람의 작업이 패션 잡지에 실린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했다. 트레이시 에민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침대 위에 빈 술병과 사용한 콘돔 등을 흩뿌려둔 작업을(나의 침대) 테이트 갤러리에 설치했을 때다. 한 남자가 그 위에 벌거벗은 채로 올라서서 한참을 뛰었다는데 미술관 직원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것 역시 작품의 일부라고 착각한 거다. 어떤 문맥이 이미 존재한다면 전혀 다른 걸 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내 작업도 패션지에 실릴 경우, 다른 사진과 변별성을 지니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하는 대신 차라리 패션을 나름대로 다루자고 생각했다. 패션이라는 게 대체 뭘지, 옷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델에게 자신의 일상복을 챙겨와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기존의 화보와 나란히 세운 채로 촬영을 했다. 꾸민 모습과 꾸미지 않은 모습, 연출과 연출되지 않은 상황, 패션과 패션이 아닌 것을 배치시킨 셈이다. 두 이미지의 공통점인 사람을 그래서 더 잘 볼 수가 있다.

정연두의 작업에서 판타지는 상당히 빈번하고 중요하게 언급된다. 꿈, 혹은 판타지라는 소재의 어떤 점이 그토록 흥미로운가? 꿈이나 판타지 자체에 대단한 관심이 있어서 아니다. 세상을 달리 보는 시선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 사진은 굉장히 기록적인 작업이다. 그럴듯한 기교로 이미지를 꾸미는 대신 셋업을 사실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판타지가 없는 사실은 건조하고, 사실이 없는 판타지는 공허하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한다.

대단히 수공예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판타지를 구현한다. 한 인터뷰에서 사용하는 도구의 기술적인 면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한다. 관심이 있다. 왜 없겠나. 다만 기술에 의해 시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시각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영국 유학 시절, 코넬리아 파커라는 작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뭔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잘못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게 크면 뭐든 그걸 이용해 해결하려 든다.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구현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아마추어처럼 배워가는 사람이 매체를 더 자유롭게 다루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표현의 가능성을 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판타지를 CG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관객으로서도 큰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인가? 컴퓨터그래픽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걸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집착하다 보면 잃는 것도 많다. 1990년대 말에 〈해리 포터〉 시리즈를 정말 열심히 읽었지만 영화에는 실망을 했다. 너무 직접적이고 말초적인 체험인 것 같았다. 오히려 내가 어린 시절 시청한 인형극 프로그램이 환상을 담는 데는 더 적합한 형식이라고 본다. 상상은 완벽하게 구현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더 자극이 되는 건 아니다.

3월 13일부터 플라토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어떤 작업을 볼 수 있을까?

〈Spectacle in Perspective,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라는 긴 제목이다. 로댕의 '지옥의 문'을 재해석해 만든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라는 작품을 로비에서 오쿨러스 리프트(3D 가상현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보여줄 계획이다.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 공평하게 놓인 인간 군상을 묘사한 작업이다. 이와 상치되게 미술관 가장 안쪽에는 크레용팝이 언제든 와서 게릴라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된다. 크레용팝 팬클럽인 '팝저씨'들은 미리 와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 남성 50여 명의 우렁찬 코러스가 곁들여진 MR 4곡이 전시장에 울려 퍼질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압박에 시달리는 중년 남자들이 추리닝 차림의 키 작은 여자 가수들에게서 힐링을 얻고,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합창으로 응원하는 데서 현대인의 외침 같은 걸 들었다. 그리고 도쿄 고급 브랜드 솜의 점원들 사진, 상록타워라는 아파트에 사는 서른두 가구의 가족 사진, 짜장면을 배달하는 청소년 사진 등이 무겁고 가벼운 작품들 사이를 채우게 된다.